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 보이는 악(惡)에의 대응과 그 의의

On the Evilness in Shaman Epic of Jeju Island

저자 신연우
(Authors) Shin, Yeon-Woo

출처 [실천민속학연구](#) , (26), 2015.8, 69-94 (26 pages)
(Source) [The Study of Practice Folkloristics](#) , (26), 2015.8, 69-94 (26 pages)

발행처 [실천민속학회](#)
(Publisher) The Society of Practice Folkloristics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516369>

APA Style 신연우 (2015).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 보이는 악(惡)에의 대응과 그 의의. [실천민속학연구](#), (26), 69-94.

이용정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Accessed) 117.17.194.105
 2015/12/28 13:4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제주도 일반신본풀이에 보이는 악(惡)에의 대응과 그 의의*

신연우**

〈목 차〉

1. 머리말
2. 일반신본풀이의 악의 양상
3. 대응의 세 가지 방식과 의의
4. 맺음말

[국문초록]

제주도 신화에는 인간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지를 해명하는 <천지왕본풀이>가 있다. 태초의 시간에 소벌왕이 속임수로 세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신화의 의의 중 하나는 이 세상의 악이 근원적이라는 합리적이고도 냉정한 현실 인식일 것이다.

제주도 무가들은 <천지왕본풀이> 이후의 세계에 악이 존재하는 양상을 지속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실존하는 악 속에서 악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 관심이 제주도의 일반신본풀이들에 수용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악인의 활동이 잘 드러나는 다섯 편인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차사본풀이, 세경본풀이, 문전본풀이를 대상으로 악행의 양상과 그에 대응 방식을 살펴보았다. 악행의 주체는 남녀나 상하, 빈부의 구별이 없었다. 피해자는 주로 여성과 아이들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악행은 살해이고, 여성에게 가하는 남성의 횡포는 주로 성적인 것이다. 여성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사람을 살해한다. 이들 본풀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살인, 성적·계급적 횡포, 도둑질과 강도 등 구체적인 악이 엄존하는 곳임을 냉정하게 일깨워준다.

동시에 악에 대한 대응 방식도 검토하는데 이는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복수로서의 살해, 악이 선과 같은 근원이기에 악과 더불어 살 수 밖에 없다는 인식, 종교로 승화하는 모습 등이 그 세 가지이다. 대응 살해는 현실에서는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문학에서는 정의라는 법감정을 충족시키는 구실을 한다. 현실적으로는 악과 더불어 살면서 지혜롭게 대

*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과제번호 : 2015-0736)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처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나아가서 악이 선과 함께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면서 종교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악과 함께 신을 제시함으로써, 악이 있어 살기 어렵지만 신이 있어 살아갈 수 있다는 위안을 준다.

그리고 이 답들은 굿 첫머리 초감제의 서사무가에서 소별왕의 속임수로 인하여 이 세상에는 근원적으로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어떻게 대응하여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의 모색이 제주도 서사무가가 가진 한 가지 기능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삶의 현실적이고도 거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가능한 답을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이야기들은 삶의 모방 또는 모형이다. 모형을 통해 세상과 자신의 삶을 객관화하고 삶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얻는 중요한 방법이었다고 생각된다. 선과 악이 함께 삶을 구성하며 그 속에서 자신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반성적 사유로 이끄는 구실을 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

[주제어] 제주도 무가, 천지왕본풀이, 일반신본풀이, 악, 악의 근원성, 대응방식

1. 머리말

제주도 굿의 첫머리에는 ‘초감제’라는 제차가 있고, 초감제에는 서사무가 〈천지왕본풀이〉가 불린다. 그 서사시에는 이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신화적 진술이 들어있다. 이 세상을 누가 차지하고 다스릴 것인가를 놓고 형제인 대별왕과 소별왕이 서로 내기를 하고 다투었는데, 마지막 막으로 꽃피우기 내기를 하던 중 동생인 소별왕이 형의 꽃이 번성한 것을 몰래 보고 훔쳐서 자기 것으로 하여, 결국 이승을 차지한 소별왕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기에 그렇다고 하는 내용이다.

신화는 물론 사실에 근거한 진술이 아니다. 그것은 그 신화를 전승하는 집단의 가치관 또는 세계관을 해명하는 것이다.¹⁾ 제주도 신화인 〈천지왕본풀

1) 문학에서 구현되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사실을 해명하기 위해 리얼리즘 문제를 다룰 수 없다. 신화는 물론 사실 또는 현실에 기반을 두지만 현실 너머의 것을 지향한다는 것은 널리 인정된다. 다음에 인용하는 기존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신화는 경험의 영역을 넘어서 근원적인 진리를 나타낸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조동일, 『세계·지방화시대 이 한국학』 7(계명대학교출판부, 2008), 275쪽.; “아주 일찍부터 인간에게는 일상의 경험을 넘어서는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 신화란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주기 때문이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진실인 것이다.” 카렌 암스트롱, 이다희 옮김, 『신화의 역사』(문학

이>에는 제주도민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관 또는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그 가장 뚜렷한 것은 이 세상의 악이 근원적이라는 것이다. 소별왕이라는 초월적 존재의 악한 행동과 함께 이 세상이 시작되었으므로 소별왕이 다스리는 한 이 세상에는 악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별왕이 일어나고 보오시니
꽃동이는 벌써 바꾸와 놓았구나
형임이 아시보고 꽃동이를 바껴놓았다 아니하고 “설운 아시
금시상법 지너서 살기랑 살라마는
금시상법은 배에는 수적(水賊)도 많고
므른되는 강적도 많고
유부녀 통간 간부 갈런 살린살이 많히리라²⁾

설운 동생아,
넌로부떠 의논하기로 이승법 마련허긴 허라마는
이승법 강적도적이며, 스외살인이여, 살인방화여 이시리라.³⁾

이는 대단히 현실적인 태도이다. 실제로 현실에는 수많은 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악이 선의 결여라는 식의 공허한 논쟁을 제기하지 않는다. 안네마리 피퍼는 서양의 경우 일원론이건 이원론이건 악이 인간 외적인 근원에서 비롯하므로 인간은 악에 대해 어떤 책임도 없다는 논리와 선악의 문제는 개인이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가 아닌가의 문제라는 칸트의 견해 등을 토대로 “개체들은 자신의 자유를 사용함으로써 선과 악을 알게 되며 이는 곧 그들의 자율적 행동에 대한 윤리적 조건이 된다. 이로써 그들은 두 가지 상

동네, 2005), 8쪽, 16쪽.

2) 고대중 구연 <천지왕본풀이>,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역락, 2001), 76쪽.

3) 이중준 구연 <천지왕본풀이>,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11쪽.

반된 가치를 동시에 함유하는 자유의 양가적 특징을 몸에 지닌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⁴⁾라고 결론에서 지적하였다. 박이문은 볼테르의 『칸디드』를 분석하면서 악이란 “존재한 물건이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사물과 사건에 대한 태도”일 뿐으로 보았다.⁵⁾ 이는 악에 대한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문학에서의 악은 실존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늘 구체적인 대상으로 직면하는 것이다. 우리가 생활에서 겪는 악은 살인, 강도, 강간, 도둑질 등 타인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주어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는 행위이다.⁶⁾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는 제주도 본풀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점에서 리코르의 생각은 우리와 가깝다. 그는 창세기의 아담 이야기를 분석하면서 뱀을 통해 “악은 이미 있더라는 것,” “뿌리 깊은 악의 외면성”을 지적한다.⁷⁾

제주도 무가들은 <천지왕본풀이> 이후의 세계에 악이 존재하는 양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존하는 악 속에서 악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 관심이 제주도의 일반신본풀이들에 수용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이 문제를 다루자는 것이다.

창세신화와 지상의 악을 연관지어 고찰한 연구는 최원오와 신연우의 것이 있다. 최원오는 만주와 아이누 신화와 우리의 창세신화를 비교하여 우리 창세신화는 자연현상보다는 인문현상으로서의 악이며 이미 완료된 악으로 인간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어서, 악마를 몰아내기보다는 신격의 힘을 빌어 지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지적하였다.⁸⁾ 신연우는 제주도 창세신화에서 이승의 악과 무질서가 불가피한 것임을 제시

4) 안네마리 피퍼, 이재황 옮김, 『선과 악』(이플리오, 2002), 192쪽.

5) 박이문, 『악이란 무엇인가?』, 『문학 속의 철학』(일조각, 1975), 55쪽.

6) 본고에서의 악은 이런 구체적인 악에서 출발한다. 후에 신앙적 또는 신화적 의미의 악에 대해, 또는 철학적 의미의 악에 대해 논의를 확장할 수도 있겠으나 본고의 초점은 생활과 신앙을 나누지 않는 것이 제주도 무속의 특징이라고 보아 생활 속의 구체적인 악을 다룬다.

7) 폴 리코르, 양명수 옮김, 『악의 상징』(문학과지성사, 1994), 242쪽.

8) 최원오, 「창세, 그리고 악의 출현과 공간인식에 담긴 세계관」, 『우리말글』 23집(우리말글학회, 2001), 23쪽.

하였기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새로 제기된다⁹⁾고 하였다. 이 두 논문은 본고가 그 문제를 잇는 계기가 되었다. 조현설은 우리 창세신화는 인간 행위와 무관하게 악이 이 세상에 들어왔으므로 인간은 악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홍수신화는 신에 대한 심판의 양상을 띠는 흥미로운 주장을 폈다.¹⁰⁾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는 악에 대해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그 양상이 제주도 신화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수자와 이지영은 <문전본풀이>의 노일제대귀일의딸을 제주 신화의 대표적인 악인으로 보았다.¹¹⁾ 특히 이지영의 글은 노일제대귀일의딸을 여산부인과 대조하면서 ‘악인형 여성상의 추출’을 목적으로 하였다.¹²⁾ 김정숙은 노일제대귀일의딸을 악으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갖는 여성”으로 보고, 처첩제 아래 있기는 하지만 제주도의 첩이 갖는 경제적 정신적 독립성을 부각했다.¹³⁾ 길태숙은 <문전본풀이>와 <차사본풀이>의 여성 주인공을 대조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악행이 탐욕, 유혹, 거짓, 살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노일제대귀일의딸은 상대신의 적대자로서 통과의례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과양생이 처는 이승의 혼돈, 무질서, 황폐를 나타내어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¹⁴⁾ 한양하도 서사무가의 시련은 존재를 자각하고 가족을 완성하고 신질서를 창조한다는 서사맥락의 기능적 측면을 탐색하였다.¹⁵⁾ 길태숙과 한양하의 논의는 악을 현실에서의 악으로 인식

9) 신연우, 『<베포도업침><찬지왕본풀이>의 구조를 통해 본 창세신화와 영웅신화의 관계』, 『열상고전연구』 40집(열상고전연구회, 2014), 392쪽.

10) 조현설, 『창세신화에 나타난 인간의 문제』, 『인문과학논집』 11(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2), 219~228쪽.

11) 이수자, 『제주도 큰굿 내의 신화에 나타난 가족 구성상의 특징과 의의』, 『구비문화연구』 12집(한국구비문화회, 2001), 247쪽.

이지영,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의 전형성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화연구』 12(한국고전여성문화회, 2006), 202쪽.

12) 이지영, 위의 논문, 228쪽.

13) 김정숙,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84쪽.

14) 길태숙,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 연구』, 『열상고전연구』 29(열상고전연구회 2009), 359쪽.

15) 한양하, 『서사무가에 드러난 시련의 양상과 의미』, 『온지논총』 29(온지학회, 2011), 236~244쪽.

하기보다 문학적으로 굴절시킨 이해여서 본고와는 초점이 다르다.

2. 일반신본풀이의 악의 양상

제주도 일반신본풀이¹⁶⁾ 중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맞부딪치는 악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초공본풀이><아공본풀이><차사본풀이><세경본풀이><문전본풀이>의 다섯 편이다. 이들 본풀이에 보이는 악의 양상을 차례로 제시한다. 자료는 주로 장주근 선생이 1962년에 송당 본향당의 맏인심방이었던 고대중 씨로부터 채록한 일반신본풀이들이다.¹⁷⁾ 다른 심방에 의한 구연본들이 여럿 있지만 우리가 다루는 악의 양상에 대하여 자료간의 주목할 만한 차이는 없으므로 각편 비교는 불필요하다. 고대중 구연본을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다른 각편을 이용하기로 한다.

<초공본풀이>에서 악은 삼천선비에 의해 저질러진다. 가난한 홀어머니인 노가단풍 아기씨의 삼형제에 대해 삼천선비는 여러 가지 악을 행한다.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것을 방해하고, 합격한 것을 취소시키고, 급기야는 늦인덕이 정하남을 시켜서 노가단풍 아기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106~109쪽). 갯부기 삼형제는 돈이 없어서 서당에서 굴목직이(아궁이직이)를 하면서 재 위에 글씨 연습을 하며 공부하는, 재능은 있으나 가난한 형제들이다. 신이 되는 인물들의 이야기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삼천선비는 삼형제 때문에 과거에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삼형제를 해치는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양반들로 상정된다. 이들은 삼형제가 과거에 합격

16) 장주근이나 현용준은 이들 본풀이들이 토착성도 없고 내용도 본토의 것과 동일하고 어느 곳 어느 심방이나 부르며 본토에서 형성된 것이 제주도에 수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일반신본풀이라는 명명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현용준, 『무속신화 본풀이 연구 서설』, 『무속신화와 문헌신화』(집문당, 1992), 19쪽.; 장주근, 『제주도의 본풀이』,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역락, 2001), 45쪽.

17)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역락, 2001), 73~210쪽. 앞으로 이 책으로부터의 인용구는 본문에 쪽수만 밝히기로 한다.

하지 못하도록 노력한다. 개인적 방해에 그치지 않고 과거시험의 상시관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실력 없는 자의 시기심이라는 개인적 차원일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자신들의 계층에 편입되는 것을 막는 것일 수도 있다. 이들은 이를 위해 급기야 그들의 어머니인 노가단풍 아기씨를 살해하기까지 한다. 살해까지 하면서 삼형제의 과거합격을 막으려는 것은 이 문제가 계급 차원이고 사회 제도적 문제이기도 하다는 인식의 반영일 수 있다. 오늘날에도 하층의 가난한 이들이 상층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 이 문제가 개인적 악의 차원에서부터 사회적 악의 차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절실한 체험에 근거하지 않았나 싶다.

〈이공본풀이〉는 부유한 인물인 제인장자의 횡포를 노골적으로 다룬 서사무가이다. 아이를 잉태하였으나 남편을 잃고 오갈데 없게 된 여성인 월강아미(원강아미)를 종으로 받아들인 장자는 원강아미를 지속적으로 겁탈하려 한다. 그네의 아들인 한락궁이는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간다. 장자는 결국 원강아미를 살해한다. 이 서사무가는 불전(佛典)에서 유래했고 종교적인 전언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은 이 세상의 현실 상황을 대단히 잘 반영하고 있다. 남편인 사라도령이 하늘나라 서천 꽃밭으로 떠났다는 것을 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로 이해하면 모든 것은 선명하게 정리된다. 아들을 데리고 종살이를 하게 된 여성이 겪는 현세의 고난이 서사의 줄기이며 그를 겁탈하려 하고 살해하는 장자의 악이 서사를 이어가게 하는 모티프이다. 원강아미의 죽음은 이 세상의 악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모습을 웅변으로 드러낸다.

제인장자는 왜 그렇게까지 원강아미를 괴롭히고 살해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계층간의 갈등이 드러나기보다는 개인적 탐욕이 부각된다. 가난하고 힘없는 하층 여성을 자기 뜻대로 농락할 수 있다는 재래의 왜곡된 남성적 관념이 그의 성적인 탐욕과 결합되어 살해에까지 이른다. 세상은 그의 편이기 때문에 장자는 별 가책이 없고 후회도 없이 일상을 이어나간다. 세상에 만연한 악의 일상성을 드러낸다.

〈차사본풀이〉는 여성의 탐욕과 악을 보여준다. 절에 살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삼형제가 가진 비단에 욕심이 나서 과양성이 각시는 삼형제를 살해한다. 오침반상 칠첩반상으로 허기진 삼형제를 먹이고 권주가를 부르며 아니먹던 술을 먹여 재운 후의 모습을 고대중은 이렇게 구연했다.

무정눈에 잠이 드니 과양성이 각씨가
삼년 묵은 근장물 오년 묵은 참지름을
수양수양 패아다가 삼형제 귀레레 지러부니 (귀에다 부어버리니)
삼형제가 놀름놀름 죽었구나. 지계에 지어다가
삼형제를 주천강 연내못디 띄와부니 (138쪽)

비단을 빼앗으려고 삼형제를 죽인 이 여인은 그러나 자기 자식으로 알고 있는 삼형제가 죽자 고을 원님에게 살려내라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 재물에 대한 탐욕과 함께, 자기 자식은 소중하고 남의 자식은 죽여도 된다는 이기심에 주목하게 된다. 자식에 대한 여성의 사랑은 널리 이해되는 것이지만 그 사랑이 자식에게만 한정되는 본능적 애정으로 그칠 때 그것 또한 악에 가깝다는 인식을 읽어볼 수 있다. 본능의 애정밖에 없는 사람은 탐욕과 결합했을 때 다른 사람을 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세경본풀이〉에는 악한 하인이 등장한다. 자청비 집의 종인 정수남이는 게으르고 무능하지만 탐욕스럽다. 일은 하지 않고 소를 잡아먹으며 문도령을 만나고 싶어서 현실 감각이 없어진 상전인 자청비를 속여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겁탈하려한다. 자청비의 음식을 다 빼앗아먹고 벌거벗고 물을 마시게 하고 산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거기서 밤을 새게 된다. 자청비는 정수남의 욕심을 막아보려고 함께 움막을 만들게 하고 움막 안에서 구멍을 만들며 시간을 번다.

자청비는 안에 들어와서 불을 숭시고(때고)

정수남이는 불빛 나는양(나는 대로) 고망을 막아두고 들어오라
 밤을 자자(자려고 하면) 자청비는 안내서 불을 숨으면서
 한 궁기 막으면 혼 궁기 빠졌고 두 궁기 막으면
 두 궁기 빠졌더라. 불빛을 막다보니 동으로 동이
 환하게 터오는구나. 불빛 막다가 기적이(인기척이) 없어
 어드레 박아지어 죽었는가 허연 나오란 보니
 정수남이는 동대레 돌아사 풀죽굴이 용심을(화를) 내었도다.
 무리로라도 자청비를 누르뜰상 싶어서 (178~179쪽)

피로 정수남의 겁탈을 피하던 자청비는 결국 그를 죽이게 된다.

“아명하였자(아무리해도) 내가 독혼 마음을 아니 먹으면
 이놈안티 몸을 헐릴 테이니……,
 이놈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어가는고.
 은즈븀(은젓가락)을 내어놓아서 느당(오른쪽)귀로 왼겔레레 찔러부난
 정수남이는 죽었더라. (179쪽)

〈차사본풀이〉의 과양생이 각시가 했던 것과 어느 정도 유사한 방법으로 정수남을 죽였지만 이 경우 자청비가 죄를 지었다고 이해되지 않는다. 악한 행동은 전적으로 정수남에게 기인하며 자청비는 자기방위 차원에서 정수남을 살해한 것이 인정될 수 있다. 현대적 법 개념으로는 자청비에게도 살인죄가 적용되었지만, 지금도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자청비에게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정수남의 악행에 대한 비난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청비처럼 악을 응징하는 여성은 현실에서는 무척 드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는 정수남에게 당하기만 하고 속수무책인 경우가 일상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정수남의 악은 청자들에게 강한 현실성을 띤다. 힘

으로 누르려는 남성의 횡포가 여성을 향한 악임을 이런 노래를 통해서 널리 알리는 효과를 가졌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문전본풀이〉는 노일저대구일이뜰이라고 하는 악한 여성을 그리고 있다.¹⁸⁾ 노일저대구일이뜰은 남선비를 속여 배를 빼앗았고 남선비를 찾아 온 남선비의 부인을 밀어서 물에 빠뜨려 죽인다. 남선비의 부인 행세를 하며 남선비의 집으로 돌아와서는 일곱 아들을 죽이려 한다. 거짓으로 배가 아프다고 하고는 일곱 형제의 간을 내 먹어야 낫는다고 거짓 점을 치게 하니 남선비가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 이 본풀이에서 노일저대구일이뜰의 사악함과 함께 부각되는 것이 남선비의 어리석음이다. 일곱 형제도 막내를 제외하고는 가짜인 어머니를 알아채지 못한다.

노일저대구일이뜰이 이렇게까지 악을 행하는 이유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물론 처음에는 남선비가 가져온 배와 그 안의 미역이나 쌀 같은 재물에 탐을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선비의 집은 몹시 가난한 것으로 첫부분에 설정되어 있으며 남선비가 오동마을에 오게 된 것도 가난을 벗어나보고자 하는 부인의 제안이었으므로 노일저대구일이뜰이 부인을 죽이고 아울러 남선비의 나라에까지 가서 일곱아들마저 죽이고자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스럽다. 이지영은 노일저대구일이뜰이 본처를 죽인 일은 그녀의 선천적인 성격으로 본다고 했¹⁹⁾던 것도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펴본 다섯 편의 서사무가에서 악행의 주체, 피해자, 악의 성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무가	악행의 주체	피해자	악의 성격 (악행)
초공본풀이	삼천선비	삼형제/ 아기씨	개인적질투/사회계급적 제한 (박해/ 살해)
이공본풀이	제인장자	한락궁이/원강아미	장자의 횡포/富의 우월적지위 (박해/ 살해)

18) 제주도의 어머니들은 자기 욕심만 차리고 심술을 부리는 딸에게 노일저대구일이 딸같이 굴고 있다고 욕을 하였다고 한다. 김정숙,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86쪽.

19) 이지영, 225쪽.

차사본풀이	과양생이각시	버무왕아들 삼형제	재물 탐욕/이기적 자식 사랑 (강도/ 살해)
세경본풀이	정수남	자청비	남성의 성적 횡포 (겁탈)
문전본풀이	노일저대구일이딸	남선비/여산부인	재물 탐욕/ 본처와 자식 살해 (도둑질/ 살해)

악행의 주체는 상층남성(삼천선비, 제인장자), 하층남성(정수남), 여성(과양생이 각시, 노일저대구일이딸)로 남녀나 상하의 구별이 없다. 상층남성은 부유하기까지 하고, 하층남성은 종의 신분이어도 상전인 여성을 노린다. 남성은 계층의식과 성적인 횡포를 보이는 데 반해 여성은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살인에 이른다.

피해자는 홀로 된 여성(아기씨, 원강아미), 그의 아들(삼형제, 한락궁이), 아이들(삼형제, 한락궁이, 버무왕아들 삼형제), 미혼 여성(자청비), 혼인한 여성(아기씨, 원강아미, 여산부인) 등으로 주로 여성과 아이들로 나타난다. 성인 남성 피해자는 문전본풀이의 남선비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타난다. 모든 각편에서 아내를 몰라보고 어떤 각편에서는 눈이 머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²⁰⁾은 남선비의 어리석음에 대한 비유적 표현일 수 있다.

악행을 대표하는 것은 살해이다. 자청비만 살해를 면하고 다른 곳에서는 모두 살해가 등장한다. 여성의 경우 실절이 살해와 같은 비중을 갖는다는 재래적 사고의 표현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박해는 다양하다. 초공본풀이의 삼천선비는 삼형제를 놀리고 과거를 방해한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못 내려오게 해놓고 자기들은 서울로 떠난다. 제인장자는 한락궁이와 원강아미에게 견디기 어려운 노역을 시킨다.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횡포는 주로 성적인 것이다. 여성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사람들을 살해한다.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의 악이 전면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탐욕으로 인한 도둑질이나 강도, 여성에 대한 성적 횡포, 상층의 하층민에 대한 겁박, 무엇보다 이런 일들로 인한 살인 등이다. 대별왕이 소

20) 김연희 구연 <문전본풀이>, 문무병, 앞의 책, 310쪽.

별왕에게 내린 저주가 이렇듯 전면적인 악의 구현으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이다.

악으로 덮인 세상에서 어린이나 여성 등 약자는 더욱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현실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피해를 입는 것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강도를 당하고 살해당해도 되잖거나 원점으로 돌려놓을 방법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 속 이야기는 이어진다. 현실에서 있기 어려웠던 해결책을 이야기 안에서 제시한다. 그것은 현실이라기보다 이 이야기 구성원들의 소망이기 쉽다. 그 소망은 사회적 가치를 이룬다. 궁극적으로는 그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움직이도록 작용한다.

3. 대응의 세 가지 방식과 의의

삼천선비로 인해 과거 합격이 무산되고 어머니를 잃게 된 삼맹두는 황금산의 아버지를 찾아가고 팔자를 그려쳐 굿을 해서 어머니를 살려내고 심방의 조종이 된다. 신격이 되어버린 이들이 현실적으로 삼천선비에게 복수할 방법은 없다. 아버지에게 신직을 받으면서 “너내 삼형제 과거할 때에 삼천선배가 과거낙방을 시켜시니 양반 잡던 칼은 여든닷단 받아보라.”(110쪽)는 말을 듣기도 하고, 신이 되어 삼형제가 “우리랑 저승 삼시왕에 들어사근 양반 원수 갚으쿠다.”²¹⁾라고 하지만 양반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장면에 가까운 것은 안사인 구연본인데, 이것도 관념적인 차원으로 이해된다. 삼맹두가 아버지를 찾아가 심방이 되고 굿을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를 살려내고 “양반의 원술 가프젠 삼시왕으로 올라간다. 양반 잡단 칼은 이른 닷단 칼이고 중인(中人) 잡단 칼은 서른 닷단 칼이고 하인(下人) 잡단 칼은 훗닷단 칼을 마련허연, 이른닷단 칼로 시왕대반지를 무어

21) 이종춘, 문무병, 앞의 책, 144쪽.

삼천선비 양반의 원수를 가뵈었다.”²²⁾라고 되어 있다. 문무병은 “심방이 죽어서 올라간다고 하는 삼천천제석궁을 심방의 저승 ‘삼시왕’이라 한다.”²³⁾고 지적한다. 삼시왕에 올라 원수를 갚았다는 것은 현실에서의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들이 연 새로운 길은 종교적 삶이다. 현실의 악에서 확실하게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현실을 종교적으로 뛰어넘는 것이다. 대별왕이 말했듯이 이승법은 악하겠지만 저승법은 참실같이 맑을 것이다. 이승에서의 악은 감내하지만 그 결과는 저승에서의 공정하고 맑은 삶이다. 노가단풍 아기씨는 죽음까지 당했지만 삼하늘에 좌정해서는 그런 설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공본풀이〉의 한락궁이는 서천꽃밭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웃음꽃과 멜망악심꽃과 죽은 사람 살리는 꽃들을 가져온다. 제인장자 집 사람들을 웃음꽃으로 웃기고 멜망꽃으로 죽인다. 죽은 어머니 뼈를 찾아서 살과 피를 모아 살려낸다. “신산만산 한락궁이는 어머니를 살리고 모조간이 영광스럽게 삼디다.”(124쪽)라는 마지막 구절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민중들의 소망일 것이다.

한락궁이는 어머니를 겁탈하려 했고 자신을 학대했던 제인장자 집 사람들을 모두 죽인다. 이렇게 되어야 정당한 벌이 내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음직하다. 이들이 살아있어서는 모자간에 잘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의 적대감 또는 서로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 강렬한 복수로 구현되었다.

〈차사본풀이〉의 과양생이 각시도 죽음으로 죄를 갚았다. 한락궁이는 학대를 당한 당사자가 복수를 했는데 이 경우는 과양생이 각시가 스스로 염라대왕을 불러오고 그로 인해 죽게 되는 일종의 아이러니를 그려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삼형제의 혼이 스스로 원수를 갚는 과정으로 되어 있다. 버무왕 아들 삼형제가 죽은 혼이 과양생이 각시의 세 아들로 환생하고 장성해서 과거 급제 후 바로 죽게 되자 과양생이 각시는

22) 안사인 구연, 〈초공본풀이〉, 현웅준, 『개정판 제주도 무속자료사전』(각, 2007), 148쪽.

23) 문무병, 앞의 책, 144쪽, 각주 698).

원님을 찾아가서 이들 살려내라고 행패를 부렸고 원님은 강림이를 저승에 보내 염라대왕을 잠시 다녀가게 했던 것이다. 염라대왕은 삼형제 시체를 버렸던 연못의 물을 퍼내게 해 삼형제의 뼈를 찾아낸다. 그리고는 과양생이 각시를 야단치는데 이것은 바로 청중들이 과양생이 각시에게 느낀 감정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과양생이 지집넌, 이년아, 네 즈식이냐?
이것이 네 즈식이냐? 남우 즈식을 명잇고 복잇으레
맹기는 사람을 꺾여두고 백비단 아홉필을 빼앗으니
그 죽은 혼정이 유왕황제국이 등수를 들어
꽃봉으로 환싱허고 꽃이 구슬되야 너 몸에 가니
너를 원수샀으자고 난 즈식이지 네 즈식이 아니다.
척일 년, 잠을 넌 아니냐?
아홉각에 매여 과양생이 지집이 각각이 올올이 찢어는고. (150쪽)

죄를 저지르면 그 악행에 대한 벌이 따르게 마련이고 그 찢갇을 무섭게 치르고야 만다는 것을 과양생이 각시의 최후를 통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 혼이 자기 복수를 하기 위해 원수의 아이로 태어난다는 설정은 억울한 죽음에 대한 원망의 깊이와 크기를 보여준다. 그러나 염라대왕이라도 데려와야 복수를 할 수 있다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역설적 주장이 되기도 한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바로 응징을 했었다. 자신을 겁탈하려는 정수남이를 달래서 잠들게 하고 귀에 젖가락을 찢러넣어 죽였다. 그러나 자청비는 정수남을 다시 살려내야 했다. 자신들을 먹여 살리는 종인 정수남이 딸보다 더 귀하다는 부모의 인식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다름 아니다. 자청비가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노력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결국 자청비는 서천꽃밭의 꽃을 구해와서 정수남을 살려내고 집으로 데려간다. “아바님

아 어머님아 주식보다 더흔 중 살려오랴네다.”(183쪽)고 하는 말은 그에 대한 저항이지만 자청비는 결국 그것이 빌미가 되어 집을 아예 쫓겨나게 된다. 자청비는 후에 하늘의 문도령과 혼인하기 위해 신부시험을 겪지만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 않다. 여성인 자청비로서는 아무리 악에 대해 대처하려 해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그렸다. 결국 자청비는 농경신으로서, 목축신인 정수남과 함께 지상에서 살아나아야 한다. 이는 소별왕 대별왕 이야기에서 악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결말을 잇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청비는 정수남을 아주 죽일 수 없었고, 결국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문전본풀이〉의 노일저대구일이딸은 남선비와 여산부인의 일곱아들들을 죽이려다가 도리어 죽게 된다. 막내아들인 녹디생인이 흥계를 알아채고 노루간으로 노일저대구일이딸을 속인 후 그네는 변소에 가서 죽는다. 노일저대구일이딸은 죽어서 측간신이 되어서, 조왕신이 된 여산부인과 죽은 후에도 지속적인 대립을 한다. 부엌과 변소는 상극이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재래식 가옥의 구조가 신화로 표현되었다고 할만하다.²⁴⁾ 변소의 더러움과 노일저대구일이딸의 악함이 병치되었다. 악은 더러움, 때, 얼룩 등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또는 변소의 더러움을 악과 동치로 보았다고도 할 수 있다. 악은 더러운 것이고 더러운 것은 변소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부엌이 필요한 만큼 변소도 필요하다. 곡신인 자청비를 괴롭히던 정수남이가 목축신이 되었다는 설정과 유사한 점을 보게 된다.

해결 방식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무가	해결의 주체	대상	해결양상	참고사항
초공본풀이	삼맹두	삼천선비	-----	종교적 전환
이공본풀이	할락궁이	장자와 가족	복수/살해	하늘 아버지 도움

24) 이수자도 같은 지적을 하였다. 이수자, 앞의 논문, 앞의 책, 247쪽. “부엌과 측간은 멀수록 좋다는 원리에서 형상화된 신화내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차사본풀이	삼형제	과양생이 각시	복수/살해	염라대왕 도움
세경본풀이	자청비	정수남	살해	다시 살려줌/목축신이 됨
문전본풀이	막내아들	노일저대구일이뜰	복수/살해	변소신이 됨

역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복수로서의 살해이다. 억울하게 살해당한 사람에 대한 복수로서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은 똑같은 살해로 되갚는 것이다. 고대 함무라비 법전으로부터 현재에도 중동 지역에서는 용인되는 복수 방법이지만 이는 끝없는 복수의 연쇄를 가져와 사회의 기반을 흔들 수 있기에 대다수의 경우에는 용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이 아닌 문학에서는 정당한 복수는 정의라는 법감정을 충족시킨다. 또한 문학의 안에서는 잔인함도 용인된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충분한 복수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전반부는 현실에서 얼마든지 일어날법한 개연성을 가지는 사건들이 제시된다. 가진자의 횡포에 의한 죽음이나 재물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힌 악인에 의한 죽음, 전처의 자식에 대한 미움과 살해 등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에 대한 개인적 복수는 금지되어 있다. 문학작품에서는 복수가 철저하고 완전하게 수행된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인 것은 아니다. 하늘에 가서 아버지의 도움으로 사람을 살리는 꽃, 죽이는 꽃을 가져온다는 것은 상상일 뿐이다. 염라대왕을 불러와서 복수를 하는 것도 일방적인 소망이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복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실은 그 복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바로 소벌왕으로부터 비롯된 현실의 악함의 일부이다. 그러나 현실을 떠난 이야기의 안에서는 다시 완전한 세계가 회복된다. 현실 너머에 있는 초월적 근원으로부터 마련되는 정의에 대한 욕구는 현실을 바로 보게 하는 힘이 된다. 정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사회라는 것을 의식하게 한다. 이를 통해서 정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의 간극을 인식한다.

그러나 이 간극은 사실 현실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세경본풀이>나 <문전

본풀이>가 말한다. 자청비를 괴롭히던 정수남은 다시 살아난다. 자청비가 스스로 살려낸다. 복수로 마감하지 않는 것이다. 가해자인 정수남을 피해자이면서 딸이기도 한 자청비보다 생활에 더 긴급하다고 보는 부모의 시각은 사회의 의식을 대변한다.

아이구, 종은 이녀 먹을 오명은(노동은) 허명 살건마는
 이거 자청비신더레 곁는 말이
 느의 집안 아바님 눈에 골리난다. 어머님 눈에 시찌난다.
 혼술 두술 서너설 여다솥 십오세까지
 입단 입성 문딱 주워아정 어서 나고가라
 자청비는 아바님 눈에 골리난다. 어머님 눈에 시찌난다
 자청비는 저 올레레 허울허울 나간다.²⁵⁾

자청비는 부모를 위해서 정수남을 살려내는 것이다. 이는 딸이 늙은 부모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식과 관계 있다. 아들이 없는 자청비 부모는 노동을 해서 양식을 마련하는 남성인 정수남을 아까워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억울함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후 자청비는 정수남은 버려두고 문도령을 찾는 일에 헌신한다. 억울함을 갚기보다 자신의 생활을 찾는 것이 더 낫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문도령과의 혼인 생활도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정수남을 복수하면서 인생을 보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작품 말미에서는 자청비가 곡식의 신으로, 정수남은 목축의 신으로 좌정했다고 한다.²⁶⁾ 농경과 목축은 생업의 두 종류이다. 이 둘은 서로 경쟁

25) 문무병, 앞의 책, 221쪽.

26) 이 점을 해명하기 위하여, 정수남이 소로소천국의, 자청비가 백주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세경본풀이 후반부가 송당계본풀이의 수용일 것이라는 권태효의 견해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훌륭한 연구성과이다. 그러나 그 점을 부각하는 것은 신화적 약을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있지만, 본고의 초점은 다른 신화와의 연관 속에서 특히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약의 양상과 대응이라는 점에만 맞추어져 있기에 다루지 않는다. 좋은 신화는 하나의 의미에 고착되지 않고 다양한 접근을 허용하여 수용자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야 한다. 권태효, 『제주도 무속신화의

하고 견제하면서 공존한다. 서로를 용납할 수 없는 인물들이지만 공존한다. 이 둘이 대립하면서도 공존한다는 생각은 결국 선과 악이 현실에서 함께 존재하는 양상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선이 좋다고 해서 선만으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악이 강하다고 해서 악만으로 세상이 구성되지도 않는다. 선과 악이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같이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이 신화는 말한다. 그것은 바로 소벌왕이 이 세상을 차지한 이후로 이 세상의 원초적 법칙인 것이다.

〈문전본풀이〉의 노일저대구일이뜰도 변소신으로 좌정한다. 변소는 더럽지만 없을 수는 없다. 노일저대구일이뜰과 여산부인의 공존은 부엌과 변소, 입과 항문,²⁷⁾ 깨끗함과 더러움, 선과 악이 공존해야 함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그것이 불완전한 채로 우리의 현실임을 다시 확인한다.

노일저대구일이뜰의 더 큰 문제는 신이 되었다는 것과 함께, 그 육체가 여러 가지 양식거리가 되었다는 점이다. 두 눈은 도려내어 바다에 던졌더니 구쟁기(소라)가 되고, 손톱발톱은 굴뚝닥지(딱지조개의 일종)이 되고, 음부는 전복이 되었다는 (200쪽) 등이다. 이는 사체화생신화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신화소이자 서세랍 섬의 하이누웰레 신화와도 같은 종류의 신화여서 크게 주목되는 바이다.²⁸⁾ 악한 것, 더러운 것이 우리 음식의 근원이라는 생각은 인간 존재의 근원적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일같이 다른 존재를 죽여야 한다.”²⁹⁾는 캠벨의 지적은 악한 것이 오히려 우리가 아난가 생각하게 한다. 자신이 살기 위해 다른 동식물을 죽이는 모습은 우리가 사실은 노일저대구일이뜰의 다른 모습을 말해준다. 인간은 죽음을 통하여 그동안 살기 위해 죽여왔던 동식물들에 보답을 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자신이 죽어 동식물이 되어 자연의 순환에 참

생성원천에 대한 새로운 고찰, 『한국구전신화의 세계』(지식산업사, 2005), 31~46쪽.

27) 김은희, 「〈문전본풀이〉와 〈하이누웰레〉의 비교연구」, 『제주도본풀이와 신화의 재조명』(영주어문학회·한국무속학회 주최 2014 상반기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014년 6월 13일), 143쪽.

28) 김은희, 위의 논문, 138~141쪽.

29) 조지프 캠벨, 이진구 옮김, 『신의 가면』 1 원시신화(까치, 2003), 205쪽.

여한다. 이렇게 되면 선악이 따로 없다. 선과 악은 들고 돈다.

이래서 결국 악에 대한 응징은 무화된다. <초공본풀이>의 삼뎡두는 양반을 원수로 알고 있지만 양반에 대한 복수는 언급되지 않는다. 어머니를 죽인 삼천선비를 계기로 어머니와 삼뎡두는 무조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현세에서의 복수는 무망한 일이다. 선과 악은 근원적인 차이가 없다. 삼뎡두는 삼천선이라는 악으로 인해 무조신이 되었다. 악이 없으면 신도 필요하지 않다. 악과 함께, 신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악이 있어 살기 어렵지만 신이 있어 살아갈 수 있다. 현실에는 수많은 악이 존재하지만 또한 신이 있어서 악을 견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초공본풀이>는 말한다. 그래서 무속이라는 종교가 필요하고 <초공본풀이>는 제주도 무속의 기본이고 원리가 된다.

우리가 살펴 본 다섯 편의 주요 본풀이는 이 세상에 현존하는 악의 양상과 그에 대응하는 방법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해 보여주었다. 전반부에서는 탐욕과 도둑질, 강도, 살인, 성적·계급적 횡포 등의 악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임을 적나라하게 제시했고, 후반부에서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세 가지 정도로 그렸다. 첫째는 정당한 복수로서의 살해였다. 둘째는 악과 더불어 살기였다. 악이 선과 같은 근원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셋째로 종교로 승화하는 모습이었다.

이 세 단계를 이야기하는 본풀이들은 물음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소별왕이 속임수를 써서 인간 세계를 차지했기에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는 신화적 설명이 제기한 문제는 근원적으로 악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악에 대응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무속은 유토피아나 피안을 꿈꾸지 않는 현세적 종교라고 한다. 현세에서 악에 대응하는 세 가지 양식을 제시했다는 점을 다시 살펴보자. 첫째는 현상적으로 악에 대한 복수가 정당하다는 본능적 인식이다. 눈에는 눈, 살인에는 살인이라는 원초적 본능이다. 이것을 긍정하는 <이공본풀이>같은 무가가 있어서 일차적인 정의감을 충족시킨다.

그러나 복수가 무한히 계속 이어질 수는 없다. 결국 악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다시 살펴보면 그 악은 선과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대별왕과 소별왕이 쌍둥이 형제이듯이 선악이 같은 뿌리이며, 소별왕이 인간을 위해 속임수를 썼듯이 세상에는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는 일이 있다. 가령 살기 위해 다른 생명을 살해한다. 나 자신도 다른 생명에게는 악이 아닌가? <세경본풀이>의 자청비와 정수남처럼 사이가 나빠도 결국은 사람 사는데 필요한 두 요소인 것처럼, <문전본풀이>의 악녀가 죽어서 전복이 되고 소라가 되어 사람들에게 양식이 된다. 악은 선으로 전환될 수 있다.

첫 단계에 비하면 둘째 단계는 상당히 지적으로 발전된 모습이다. 악의 근원이 선과 같다는 것과 선과 악은 서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혼자 발전시키기 어렵다. 이런 신화를 통해서 암시를 받고 반복적 연행을 통해 거듭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다. 부엌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변소신도 섬긴다. 입만 귀한 것이 아니라 항문도 귀하다. 결국 함께 존재해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인식은 악에 대해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가능하게 한다. 사람이 모든 악에 매번 똑같이 대응하며 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악에 대한 복수만을 생각하고 매일을 보내는 것은 삶을 훼손하는 것이다. 악을 넘어서는 철학적 반성을 악과 선이 같은 근원이고 서로 전환한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학습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위에 놓이는 세 번째 단계가 <초공본풀이>가 제시하는 종교적 해결이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다. 죽음 앞에 놓이면 선이니 악이니 하는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 <초공본풀이>는 죽음의 문제를 다룬다. 앞부분에서 삼천선비의 악행으로 인해 출세길이 막히고 어머니인 노가단풍 아가씨는 죽음에 이르지만, 사실은 이들은 모두 죽음으로 가는 길을 예비하기 위한 전초 역할이다. 삶의 길은 각자 과정이 다르더라도 그 길을 거쳐 죽음에 이른다. 삼맹두나 어머니는 죽음을 미리 겪는 역할을 한다. 미리 겪기에 앞으로 죽을 사람들에게 길을 일러줄 수 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삶에서의 선과 악은 모두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삼천선비에 대한 원한도 죽음 앞에서

는 의미가 없다. 어머니는 일반인들의 죽음을 맞는 신이 되고 삼형제는 무당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무조신이 되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의 삶을 이끈다. 저 앞에는 죽음이 있으며 삶의 유한성을 죽음 너머의 무한성으로 극복하라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세상의 악을 세상에서 갇으라 하지 않고, 또 악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 선과 악이 근원적으로 하나라는 철학적 인식으로 그치지 않아, 죽음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제주도 무속은 종교가 된다.³⁰⁾

4. 맺음말

이제까지 제주도 서사무가 중 악인의 활동이 잘 드러나는 다섯 편인 〈초공본풀이〉〈이공본풀이〉〈차사본풀이〉〈세경본풀이〉〈문전본풀이〉를 대상으로 악행의 양상과 그에 대응하는 문학의 방식과 그 의의를 검토했다. 악행의 주체는 남녀나 상하, 빈부의 구별이 없었다. 피해자는 주로 여성과 아이들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악행은 살해이고, 여성에게 가하는 남성의 횡포는 주로 성적인 것이다. 여성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사람을 살해한다. 이들 본풀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살인, 성적·계급적 횡포, 도둑질과 강도 등 구체적인 악이 엄존하는 곳임을 냉정하게 일깨워준다.

동시에 악에 대한 대응 방식도 검토하는데 이는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복수로서의 살해, 악이 선과 같은 근원이기에 악과 더불어 살 수 밖에 없다는 인식, 종교로 승화하는 모습 등이 그 세 가지이다. 그리고 이

30) 이렇듯 악에 대한 대응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은 현실의 악과 신화적 악이 구분되기 때문일 수 있다. 이공본풀이와 차사본풀이의 악은 보다 현실적이어서 응징으로 그친다. 그러나 세경본풀이와 문전본풀이의 악인 정수남과 노일저대구일이들은 신으로 좌정한다. 이들을 살해하는 것은 사실은 농경신과 목축신의 대립, 부역신과 측간신의 대립을 나타내기 위한 신화적 장치이며 신화적 살해라고 볼 수 있다. 초공본풀이에서는 종교를 통해 복수를 넘어서기에 정치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본풀이들은 현실의 악과 제의적 악을 모두 수용하면서 이를 종교적으로 초월하는 구도를 마련했다고 생각된다.

답들은 곳 첫머리 초감제의 서사무가에서 소별왕의 속임수로 인하여 이 세상에는 근원적으로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어떻게 대응하여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의 모색이 제주도 서사무가가 가진 한 가지 기능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삶의 현실적이고도 거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가능한 답을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보면 제주도의 일반신본풀이들은 잡다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문제의식을 지향하고 해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삶의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답을 이야기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주제를 철학적 논설로 제기할 수는 없었다. 대개 무학인 제주도의 서민들이 논설로 된 주장을 수용하기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공감과 설득을 위해서는 이야기 형식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초공본풀이〉와 〈이공본풀이〉는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가난한 아들 이야기이다. 이들이 삼천선비나 제인장자와 같은 상층 또는 재력가들 아래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은 누구에게도 쉽게 전달된다. 〈세경본풀이〉의 자청비는 사랑에 빠진 젊은 여성으로 사랑에 빠졌기에 어리석게도 정수남이 같은 악인에게 속아 넘어가는 모습을 누구나 안타깝게 지켜본다. 〈차사본풀이〉나 〈문전본풀이〉에서도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남의 어린애를 죽이는 여자에 대해 희생자와 같은 분노를 가지고 지켜본다. 청자들은 이들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또는 그 환경과 자신을 동일시해 볼 수 있다. 이야기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방 또는 모형임을 안다.

모형은 객관화의 도구이다. 모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객관화해볼 수 있다. 자신의 삶을 포함해 삶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얻는다. 이 경우 복수가 정서적으로 만족스럽지만 복수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삶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알게 된다. 삶 속에는 선과 악이 함께 들어 있고, 죽음의 문제가 선악을 넘어서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선과 악이 함께 삶을 구성하는 이 세계에서 자신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반성적 사유로 이끄는 구실을 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 삶에 대한 이러한 통찰이 제주도 서사무가를

지금까지 이끌어 온 힘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검토는 제주도의 다른 본풀이와 설화 일반으로 확대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토의 서사문학을 통해서 악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보편적인 기제가 존재하는지 문학적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 같다. 가령 이강엽은 고전서사물에 보이는 악을 사악함 외에도 나약함이나 무지, 불순성에서 기인하는 양상을 살피고 이에 대해 계도, 풍자, 징치의 대응 방식을 검토하였다. 그러면서 선악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누이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하고, “이분법적 대립에 의한 설명보다는 작품별 특성에 맞는 섬세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³¹⁾ 이강엽은 또한 우리 고소설에는 악에 대한 직접적인 응징이 일어나지 않는 작품이 제법 있으며, “초기소설에서는 심각하게 표면화하지 않던 악이 17세기 이후 구체화하며, 통속화와 함께 선/악의 대립이 더욱 극대화한 것으로 보인다.”³²⁾고 지적하였다. 이런 점은 고소설과 제주도 신화의 악에 대한 대응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철학에서 악을 다루는 방식과 문학적 방식은 어떠한 차이점을 드러내는지 살펴봄으로써 문학의 기능과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보인다.

■ 참고문헌

- 권태효, 『제주도 무속신화의 생성원천에 대한 새로운 고찰』, 『한국구전신화의 세계』, 지식산업사, 2005.
- 길태숙,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 연구』, 『열상고전연구』 29, 열상고전연구회, 2009.
- 김은희, 「〈문전본풀이〉와 〈하이누엘레〉의 비교연구」, 『제주도본풀이와 신화의 재조명』, 영주어문학

31) 이강엽, 「고전서사물에 나타난 악의 성격과 대처 양태」, 『고전서사의 해석과 교육』(보고사, 2012), 297~333쪽.

32) 이강엽, 「악의 초탈, 관용의 서사」, 위의 책, 272~373쪽.

- 회 · 한국무속학회 주최 2014 상반기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014년 6월 13일.
- 김정숙,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년.
- 박이문, 『악이란 무엇인가?』, 『문학 속의 철학』, 일조각, 1975.
- 신연우, 『〈베포도업침〉〈천지왕본풀이〉의 구조를 통해 본 창세신화와 영웅신화의 관계』, 『열상고전연구』 40집, 열상고전연구회, 2014.
- 이강엽, 『고전서사의 해석과 교육』, 보고사, 2012.
- 이수자, 『제주도 큰굿 내의 신화에 나타난 가족 구성상의 특징과 의의』, 『구비문학연구』 12집, 한국구비문학회, 2001.
- 이지영, 『〈문전본풀이〉에 나타난 악인형 여성의 전형성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 조동일, 『세계 · 지방화시대가 한국학 7』, 계명대학교출판부, 2008.
- 조현설, 『창세신화에 나타난 인간의 문제』, 『인문과학논집』 11,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2.
- 최원오, 『창세, 그리고 악의 출현과 공간인식에 담긴 세계관』, 『우리말글』 23집, 우리말글학회, 2001.
- 한양하, 『서사무가에 드러난 시련의 양상과 의미』, 『온지논총』 29, 온지학회, 2011.
- 현용준, 『무속신화 본풀이 연구 서설』,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 _____, 개정판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각, 2007.
- 안네마리 피퍼, 이재황 옮김, 『선과 악』, 이끌리오, 2002.
- 조지프 캠벨, 이진구 옮김, 『신의 가면』 1 원시신화, 까치, 2003.
- 카렌 암스트롱, 이다희 옮김, 『신화의 역사』, 문학동네, 2005.
- 폴 리콕르, 양명수 옮김, 『악의 상징』, 문학과지성사, 1994.

On the Evilness in Shaman Epic of Jeju Island

Shin, Yeon-Woo*

<Chonjiwang Bonpoori>, one of the shaman epic of Jeju Island, explains why we have evilness in this world. It says it is because SobyulWang, one of the twin brother, took this world by deception at the time of the Beginning.

Other five shaman epics of Jeju show us the aspects of the evilness we face, tell us what is it like to live with those evilness and how to treat them. We find pragmatic concerns against the evilness in our life.

Five shaman epics are <Chogong Bonpoori> <Igong Bonpoori> <Chasa Bonpoori> <Segyung Bonpoori> and <Moonjun Bonpoori>, which have motifs of the villains or wicked men/women. And I examined the wicked deeds of them and the countermeasure of the other people.

The subject of the bad deeds are across-the-board, men/women, haves/not-haves, upper/low class. Victims are women and children. Typical criminal is homicide and women are in danger of sexual assault by male. Women are blind with avarice and kill a person. These shaman epics bring us to our senses that we live in the world, in which is full of murder, fraud, robbery, and tyranny of sex and class.

They tell us the three contingency plans against the evilness; Homicide as a righteous revenge, Sense of the reality that we should live with the evilness as the evilness has the same origins as the goodness from the beginning,

*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Technology

Sublimating our minds to religious value.

These stories are the imitations or the models of our life. We can objectify our life in this world and get discernment on how to live with the evilness. They show us the insight that this world is composed of good and evil at the same time by the roots.

[Keywords] : Jeju Island, Shaman Epic, Evilness, <Chogong Bonpoori>, <Chogong Bonpoori>, the root of evilness

이 논문은 2015년 6월 29일 투고되어,
2015년 8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2015년 8월 17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